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0. 18.(화) 15:30 < 10.19.(수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0. 17.(월)
담당 부서 <총괄>	소재부품장비협력관 소재부품장비총괄과	책임자	과 장 김 진 (044-203-4910)
		담당자	서기관 임경섭 (044-203-4911)

「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정책방향」 발표

- '제10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' 개최, 그간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도 150대로 확대, 중점 지원키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이창양)는 10.18일(화)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**'제10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'**(이하 소부장경쟁력위)를 개최하여 **'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정책방향'** 등의 안건을 논의·확정했다.

< 제10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개요 >

- (일시/장소) '22.10.18(화) 14:00~15:10 / 정부서울청사
- (참석) 경제부총리(위원장), 산업부 장관(부위원장), 관계부처 장·차관, 민간위원
- (안건) ① (심의안건) 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정책방향(안)
  ② (심의안건)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개편(안)
  ③ (심의안건) 기업간 협력사업(모델) 승인에 관한 건(안)
  ④ (서면보고) GVC 재편대응특별위원회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
  ⑤ (서면보고)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

□ **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**된 금번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, 미-중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**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재·부품·장비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**함에 따라,

- 지금까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하였던 소재·부품·장비 정책을 넘어, 향후 가속화되는 **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**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① 이에 **'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정책방향'**을 심의·의결하여, 그간의 소부장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**향후 5년간 소부장 산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**하였으며,

②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**첫 번째 구체적 실행계획**으로서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,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**100대 핵심전략기술**을, 對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하여 **150개로 확대·개편**한다.

③ 아울러,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·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하여 제안한 **수요-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**하여,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의 **조기 사업화**, **국내 공급망 확보**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**이창양 산업부 장관**은 "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, 미-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**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**되는 상황에서 **안정적인 소재·부품·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**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" 라고 강조하면서,

○ "금일 확정된 새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,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 및 지원, 요소와 같은 범용품·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, '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' 수립 등 **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**"이라고 밝혔다.

□ 금번 회의에서 논의·확정된 **안건의 주요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《 1. 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정책방향 》 ※ 상세내용 붙임1 참조

□ **(수립배경)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**을 통해 對日 의존도가 역대 최소('22.上 15.4%)를 기록하는 등 **일부 성과**도 창출하였으나,

○ 소재부품장비 **對中 의존도는 지속 증가**('12년 24.9% → '22.上 29.6%)하고,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**작년 요소수 사태**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등 **한계점**도 일부 존재하였음

□ **(주요정책방향) ❶對세계, 첨단미래산업**으로 정책대상 확대, **❷공급망 종합 지원체계** 구축, **❸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**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

1 (정책대상) 對日/주력산업 중심 → 對세계/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

※ '20년 「소부장 2.0 전략」을 통해 對日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, 구체적 지원수단 부재로 모니터링 중심 관리

○ '20년 최초 선정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**중국 등 對세계 공급망, 첨단미래산업**을 고려하여 **150대 핵심전략기술로 대폭 확대**

-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**R&D, 세제, 규제 패스트트랙, 으뜸기업 선정 등**을 집중지원하고, **미래산업 분야 R&D 비중*도 확대**

* 소부장 R&D 신규예산중 신산업 비중(산업부) : ('22) 99억원, 9.3% → ('23) 242억원, 24.0%

○ 아울러, **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**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**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** 추진

2 (공급망) 공급망 위기대응력 부재 → 종합지원체계 구축

○ **「소부장특별법」 개정***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, 리스크 관리 등 **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**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* 「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및 (추가)**공급망 안정화**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발의(9.8일)

○ **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**하여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**요소와 같은 원소재·범용품도 집중 관리**

- **코트라·무역협회·수입기업 등** 가용가능한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위기징후 파악·대응을 위한 **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**

○ 아울러, 단일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 간에 핵심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·안정화를 위한 **소재·부품·장비 공급망 안정사업*** 신규 추진

* 기술개발,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, 컨설팅, 재고확대, 규제개선, 국제협력 등

3 (글로벌화) 국산화 중점 →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까지 지원

○ 그간의 국내 수요-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을 넘어, **해외 수요-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&D 등 협력범위 확대**

○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**글로벌화 지원(무역금융, 인증 등)까지 자동 연계**

- **코트라, 업종 단체 및 융합혁신지원단(37개 정출연) 등 협업**을 통해 **해외 수요발굴** 및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연계 추진

○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, **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로 활용**하는 **'소재·부품·장비 글로벌화 전략*' 수립**

* 주요 국가별 소재·부품·장비 수출여건 분석, 유망 수출품목 육성 등 포함

《 2.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개편 》 ※ 상세내용 붙임2 참조

□ **그간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,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**하여 현행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**재편할 필요성이 제기**되었으며,

○ 이에 약 5개월간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적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 삭제, 신규기술 63개 추가 등 **총 150개 핵심전략기술 후보군을 발굴, 금번 경쟁력위에서 심의·확정**함

□ **산업분야별 핵심전략기술 개편 내용**은 다음과 같음

① (반도체) 기존 17개 → 32개로 확대

○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(불화수소 등) 중심에서 **패키징 후공정,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**까지 확대

○ 메모리 반도체 기술 뿐 아니라 **시스템 반도체(비메모리) 기술**까지 포함

② (디스플레이) 기존 10개 → 14개로 확대

○ 현재의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에서 **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(XR, 마이크로 LED, 플랙서블) 기술** 중심으로 확대 개편

③ (자동차) 기존 13개 → 15개로 확대

○ 내연차 중심(수소차 관련 일부 포함)의 기술에서 전기차 등 **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(구동모터용 고속베어링,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)**을 추가

④ (기계금속) 기존 38개 → 44개로 확대

○ **(기계)** 전통 기계산업용 장비(공작기계 등) 중심에서 **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**으로 전환

○ **(금속)** 마그네슘·알루미늄 등 **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** 기술개발

⑤ (전기전자) 기존 18개 → 25개로 확대

○ 상용 이차전지의 핵심소재(양극재, 음극재, 전해질, 분리막)의 자립화에서 **고성능, 고안전 차세대 전지(전고체 전지 등) 기술**로 확대

○ **태양전지, 수전해용 전극소재 등** 특정국 의존 품목도 신규 포함

⑥ (기초화학) 기존 4개 → 15개로 확대

○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제품에서 **친환경(셀룰로오스계 인조섬유), 저탄소(리사이클 섬유소재), 미래유망(엔지니어링 복합소재) 등** 확대

⑦ (바이오) 기존 0개 → 5개로 확대

○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**바이오 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기술 신규 확대**

* 백신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은 우선 반영(9차 위원회 심의 → 고시개정 `22.6.24)

□ 금번 확정된 **150개의 핵심전략기술은 금주중 산업부 고시***될 예정이며,

* '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, 핵심전략기술 선정·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'

○ **으뜸기업 신청자격 부여**(소부장법 제13조), **환경·고용 규제완화 특례**(소부장법 제63조~제67조), **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·인수 세액공제**(조특법 제13조의3), **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**을 집중 지원

《 3. 수요-공급기업 간 협력사업(모델) 9건 신규 승인 》

□ **소부장 협력모델**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**기술 경쟁력 강화** 및 **공급망 안정화** 등을 위해 추진('19.11월 최초 승인)된 것으로,

* 법적 근거 :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제49~50조

○ 수요-공급기업, 대학·연구기관·규제기관 등 관련 **이해 관계자**간 **공동 목표 조기달성**을 위한 **연대·합의 방식**으로 운영되는 **대표적인 대·중소 협력 제도**

* ①수요기업의 기술로드맵 공유, 구매확약 등 **수요측 참여 의무화**, ②기업전략보호 등을 위한 **정책지정**, ③환경·노동 등 관련 **규제특례** 및 **세제·금융** 등 정부 원스톱 지원

○ **소부장 협력모델**은 올해 시행 **3년차**로, 산업부 및 중기부 합동으로 현재까지 **총 50건**을 승인하였으며, 이를 통해 **해외 수입**에 **절대 의존**하던 품목의 **조기 사업화**, **국내 공급망 확보** 등의 성과가 본격 창출 중이며 가속화될 전망

< 협력모델 주요 성과 >

· **A社** :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인조흑연의 조기 사업화로 국내 수요 62% 공급 역량 확보
· **B社** : 반도체 장비 부품(정전척·히터) 기술 자립화 및 국내 수요기업과의 공급계약 체결
· **C社** :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영구자석용 희토류의 국내 공급망 확보

□ 금번 경쟁력위에서는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·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하여 제안한 **수요-공급기업 간 협력모델**을 **총 9건 승인**

* 협력모델(산업부 실무추진단) 4건 및 상생모델(중기부 대·중소 상생협의회) 5건

□ 산업부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**협력모델**은 ❶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, ❷미래차량용 압력 센서, ❸차량용 5G 무선통신시스템(TCU), ❹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 **총 4건**으로,

○ **친환경·지능형 모빌리티**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**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** 대응 등 **국가적 과제* 관련 분야**에서 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

* 新정부 **110대 국정 과제** : (23번)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 (모빌리티 혁명 등)

○ 정부는 금번 승인된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~5년간 **약 900억원 규모**의 R&D **지원**,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**세제 혜택**, **인력 및 규제 특례***를 제공하는 등 **원스톱(one-stop) 패키지** 지원할 예정

* 주5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로 인가, 청년의무고용제도 적용 완화, 공공연 인력파견 지원 등

□ 한편 **중기부 대·중소기업 상생협의회**에서 제안한 **상생모델**은 **총 5건***으로, **중소기업의 역량 강화** 및 **판로 확보**, **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** 등 기업 간 **상생협력**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* ❶초소형 인공위성 수신기, ❷공작기계 툴 홀더, ❸잡음제거 음성인식 모듈, ❹전기이륜차용 파워트레인, ❺차세대 풀리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심

□ 산업부는 향후에도 **협력모델**이 우리 기업들과 소부장 산업의 **위기 돌파구**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**협력 분야**를 확대하고, **수요자 중심의 발굴 및 관리체계**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.

○ 기존 對日 100대 핵심품목 중심에서 **對세계 공급망 위험** 품목, **미래 먹거리 산업·대내외 기술환경 변화** 등을 고려한 품목으로 **협력 분야를 확대**하고,

○ 우수 소부장 기업의 **참여를 활성화**시키기 위해 **상시 공개 모집 방식***을 도입하고, 평가 시 **미래 확장성**이 높고, **잠재적 수요처**가 많으며, **도전적**인 목표를 제시하는 모델을 우대할 예정이다.

* 2022년 소재·부품·장비 협력모델 후보 모집 공고('22.9.5~)

【별 첨】 1.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
2.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개편

담당 부서 <총괄>	소재부품장비협력관 소재부품장비총괄과	책임자	과 장 김 진 (044-203-4910)
		담당자	서기관 임경섭 (044-203-4911)
			사무관 황채은 (044-203-4913)
			사무관 전성우 (044-203-4915)
	소재부품장비협력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	책임자	과 장 이규봉 (044-203-4920)
		담당자	사무관 김현섭 (044-203-4921)
			사무관 오인봉 (044-203-492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